



공군3미사일방어여단 예하 8547부대 장병들이 야간 기동방어훈련 중 임무절차를 수행하고 있다. 부대 제공

한 치 앞 안보이는 어둠서도...대낮처럼 완벽 기동

공군3미사일여단 야간 기동방어훈련 전술진지로 장비 전개 방어능력 극대화

공군3미사일방어여단(3여단) 예하 8547부대는 11일 야간 기동방어훈련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

현대전에서 방공작전은 적 공중항체를 성공적으로 격추하는 임무 외에도 지속적

인 작전 수행을 위한 중요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이에 3여단은 변화하는 전장환경 속 부대 생존성 향상과 대비태세 유지를 위해 고정된 진지를 벗어나 전술진지로 장비를 전개하는 기동방어훈련을 시행했다. 훈련에서는 기동 준비부터 실제 전개에 이르기까지 세부 과정을 숙달했다.

특히 전사전환절차에 따른 단계별 조치

숙달과 적 무인기 대응 훈련, 주야간 기동방어, 재난통제 등 다양한 연동 훈련과 함께 야간 기동방어훈련을 병행해 다각적인 임무수행 역량을 배양했다. 또한 적 공중위협에 맞서 부대의 생존성을 확보하고 장비 설치 절차를 숙달해 국가 주요자산에 대한 유연한 방어능력을 강화했다.

이장민(중위) 작전중대장은 “실전적인 훈련을 통해 미사일 방어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임무 숙달을 통해 어떠한 위기에서도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임무를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조진철(소령) 포대장은 “유사시 신속하고 정확한 기동을 통해 다양한 공중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훈련을 기획했다”면서 “언제 어디서든 국가와 국민을 최전선에서 수호하는 강한 미사일방어여단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채무 기자

한빛부대 21진, 파병 전 주특기 훈련 구슬땀

차량 근접전투 사격 등 우발상황 대처

대한민국을 대표해 남수단에서 유엔평화유지활동(PKO)을 펼칠 남수단재건지원단(한빛부대) 21진 준비단이 체계적인 훈련으로 임무 중 생길 수 있는 우발상황 대처능력을 높였다.

한빛부대 21진은 12일 육군특수전사령부 국제평화지원단 파병종합훈련장에서 차량 근접전투 사격훈련을 했다. 오는 4월 남수단 전개를 앞둔 장병들은 지난달 23일부터 기능별 주특기 훈련을 하고 있다. 이날 훈련에서는 경비대 장병들이 나서 영외 작전 중 무장세력 습격, 적대세력의 주둔지 공격에 대응하는 능력을 높였다.

훈련은 소형전술차량이 병력과 장비를 호위하던 중 무장세력의 공격을 받는 상황으로 시작했다. 소형전술차량에 탑승 중이던 기관총 사수가 신속히 상황을 파악한 후 보고했다. 팀장 명령에 따라 빠르게 하차한 장병들이 대응사격에 돌입했고, 교전 중 부상자가 발생하자 차량 뒤편으로 환자를 옮겨 응급처치를 시행했다. 환자를 안전지대로 옮긴 뒤 군의관과 의무병이 함께 탄 구급차량으로 병원에 후송하는 것으로 훈련은 마무리됐다. 훈련에서는 유엔남수단임무단(UNMISS) 평화유지요원을 위한 교



한빛부대 21진 경비대 장병들이 12일 국제평화지원단 파병종합훈련장에서 열린 차량 근접전투훈련 중 우발상황을 가정한 대응사격을 하고 있다. 부대 제공

전규칙이 적힌 ‘블루카드’도 휴대해 실전성을 높였다. 블루카드에는 무력 사용 전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상황을 통제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내용과 영어·아랍어·남수단 현지어로 적힌 사격 전 경고문구가 적혀 있다.

박인용(소령) 경비대장은 “부대 방호와 위기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상황조치, 실사격, 근접전투능력을 배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빛부대 21진 주특기 훈련은 이달 말까지 계속된다. 이후 최종 임무수행평가와 환송식을 한 후 4월 7일 남수단으로 출국해 20진과 임무를 교대할 예정이다. 최한영 기자

실무 역량 키우고 나눔 실천...‘일석이조’ 밥상

해군교육사 교육생들 어르신 급식 봉사

해군교육사령부 기술행정학교 교육생들이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급식 봉사로 나눔정신을 실천했다.

부대는 12일 “김호현(상사) 조리초급반 담임교관을 비롯한 조리·보급·재정 초급반 교육생 20여 명이 최근 경남 창원시 의창노인복지관을 방문해 점심식사를 준비하고 배식하는 봉사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봉사활동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약 5시간 동안 진행됐다. 교육생들은 복지관 직원들과 역할을 나눠 약 400인분의 식사를 정성껏 준비해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제공했다.

식단은 팔찰밥과 소고기미역국, 생선구이, 소불고기, 볶음나물, 배추김치 등 영양을 고려한 한식 메뉴로 구성됐다. 교육생들은 식재료 손질부터 조리, 배식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며 어르신들에게 정성을 담은 식사를 대접했다. 복지관 내부 청소와 환경정리, 각종 일손 돕기 등도 펼쳤다.

특히 조리초급반 교육생들은 봉사활동 과정에서 복지관 영양사로부터 위생관리 교육과 영양 컨설팅을 받으며 단체급식 운영에 필요한 식자재 유통 과정, 위생 관리, 급식 운영체계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



해군교육사령부 기술행정학교 조리·보급·재정 초급반 교육생들이 12일 어르신들의 식사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 제공=홍성민 중사

간을 가졌다. 향후 함정과 육상부대에서 장병들의 급식을 책임질 조리 부사관으로서 실무 역량을 키우는 의미 있는 교육이 됐다고 부대는 설명했다.

봉사활동에 참가한 윤주찬 하사는 “어르신들께 따뜻하고 든든한 한 끼를 대접할 수 있어 큰 보람을 느꼈다”며 “앞으로 함정과 육상부대에서 장병들의 사기와 전투력 향상에 기여하는 최고의 조리 부사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익숙(대령) 기술행정학교장은 “조리 초급반 봉사활동은 2024년부터 지역사회와 함께하고 있으며 이런 활동은 나눔의 가치를 직접 체험하는 뜻깊은 시간일 것”이라고 말했다. 조수연 기자